

# 전도서 강해

## AN EXPOSITION ON ECCLESIASTES

[제2판]

김효성 목사

Pastor Hyosung Kim  
Th.M., Ph.D.

옛신앙

oldfaith

2017



## 머리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증거대로(마 5:18; 요 10:35; 갈 3:16; 딤후 3:16),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라는 고백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하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진술대로(1:8), 우리는 성경의 원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그 본문이 “그의 독특한 배려와 섭리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었다”고 믿는다. 이것은 교회의 전통적 견해이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은 야곱 벤 카임이 편집한 제2랍비 성경(봄버그판)을 표준적 마소라 본문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성경은 성도 개인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활동에도 유일한 규범이다. 오늘날처럼 다양한 풍조와 운동이 많은 영적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묵상하기를 원하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기를 원한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지라도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올 것이다(암 8:11).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오고 있다고 본다. 많은 설교와 성경강해가 있지만, 순수한 기독교 신앙 지식과 입장은 더 흐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요구되는 성경 해석과 강해는 복잡하고 화려한 말잔치보다 성경 본문의 바른 뜻을 간단 명료하게 해석하고 적절히 적용하는 것일 것이다. 사실상, 우리는 성경책 한 권으로 충분하다. 성경주석이나 강해는 성경 본문의 바른 이해를 위한 작은 참고서에 불과하다. 성도는 각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주석과 강해는 오직 참고서로만 사용해야 할 것이다.

## 내용 목차

1장: 해 아래의 모든 것이 헛됨 .....	7
2장: 쾌락도, 지혜도, 수고도 헛됨 .....	9
3장: 모든 일이 때가 있음 .....	13
4장: 학대, 시기, 친구 없음 .....	20
5장: 하나님을 경외함, 재물이 헛됨 .....	25
6장: 낙이 없는 삶 .....	35
7장: 지혜와 어리석음이 대조됨 .....	40
8장: 왕에게 복종하라 .....	55
9장: 사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 .....	61
10장: 작은 어리석음 .....	69
11장: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	77
12장: 청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	82

## 서론

전도서의 **저자**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1:1) 솔로몬이다. 저자는 큰 지혜를 많이 얻었고(1:16),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고(2:8) 잠언을 많이 지었다(12:9)고 말한다. 그것은 솔로몬에게 가장 적합하다. 열왕기상 4:29-30, 32,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저가 잠언 삼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일천 다섯이며.” 10:23,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크니라.” 11:3, “왕은 왕후가 700인이요 빈장[첩]이 300인이라.” 그는 후년에 인생을 회고하며 본서를 썼을 것이다.

본서가 솔로몬이 쓰지 않았고 후대의 어떤 저자가 썼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sup>1)</sup> 이런 주장에 대한 가장 유력한 증거로 주장된 것은 언어적 자료들 즉 단어들과 문법 구조가 후대의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도서의 어휘, 어형론, 구문 구조, 문체 등은 히브리 문학들의 어느 시대에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sup>2)</sup>

본서는 언어와 문체에서 아가서와 공통점이 가장 많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을 여호와(יהוה)로 부르지 않는 것은 전도서와 아가서 두 권뿐이다.<sup>3)</sup> 이 사실은 본서가 솔로몬의 저작이라는 내적인 증거들 중에 중요한 한가지 점이기도 하다.

성경의 각 책들은 특징적 주제를 가진다고 본다. 시가서들도 그러하다. 욥기의 특징적 주제는 고난이며, 시편은 기도와 찬송, 잠언은

---

1) 포로 후기의 것으로 봄. 자유주의자들 외에, Hengstenberg, Delitzsch, Lange, E. J. Young, H. C. Leupold 등이 이런 견해를 취함.

2) Gleason L. Archer, Jr., 김정우 역, 구약총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551쪽.

3) 위의 책, 560쪽.

지혜, 아가서는 사랑이다. 하나님께서는 신구약성경 66권이 도서관 같이 다양한 주제들의 책들로 구성되어 풍성한 교훈이 되게 하셨다.

전도서의 **특징적 주제**는 허무이다. 본서에는 ‘헛되다’는 말(헤벨 חֲלוּלָהּ)이 38번 나온다. ‘헛되다’는 원어(חֲלוּלָהּ)는 원래 ‘수증기, 입김’이라는 뜻이며(잠 21:6; 사 57:13) ‘사라지는 것, 덧 없는 것, 무가치한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BDB). 또 본서에는 ‘해 아래’라는 표현도 29번이나 나온다. 본서는 초두에도, 맨 마지막에도 세상의 모든 것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1:2; 12:8). 이런 사상은 단순한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와 다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은 현실이며 사실이다.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사실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다. 그러므로 본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12:13)는 교훈을 준다.

### 본문 혹은 각주에 자주 사용된 약어

KJV	영어 King James Version
NASB	영어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NIV	영어 New International Version
LXX	고대 헬라어 70인역
Syr	고대 수리아어역
It	고대 라틴어역
Vg	고대 라틴어 Vulgate역
BDB	Brown-Driver-Briggs, <i>Hebrew Lexicon of the O. T.</i>
KB	Koehler-Baumgartner, <i>Lexicon in Veteris Testamenti Libros</i>
Langenscheidt	<i>Langenscheidt Pocket Hebrew Dictionary.</i>
NBD	<i>The New Bible Dictionary.</i> IVP.
Poole	Matthew Poole, <i>A Commentary on the Holy Bible</i>
JFB	Jamieson-Faussett-Brown, <i>A Commentary.</i>

## 1장: 해 아래의 모든 것이 헛됨

[1-2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원어(חֲלוּ)는 원래 ‘수증기’나 ‘입김’이라는 뜻이며(잠 21: 6; 사 57:13) 점차 ‘사라지는 것, 덧없는 것, 무가치한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BDB). 전도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3-4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자기에게는 결국 아무 유익이 없고 다만 뒤의 사람들에게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며, 그 사람도 또 결국 죽을 것이므로 결국은 헛되다는 말이 된다. 이와 같이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온다. 수천년의 인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

[5-7절]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그 강물이 흘러 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느니라].

자연만물은 날마다 반복된 일을 한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다시 증발하여 하늘의 비구름이 된다.

[8절]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자연만물의 이런 반복을 생각하면 만물이 피곤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만물만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람도 만족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눈은 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지만 만족함이 없고 귀도 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지만 들어도 마음의 욕구에 차지 않는다.

**[9-11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 지라. 해 아래는 새것이 없으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혹은 '것들']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세상의 모든 일들은 반복된다. 물론 과학문명에서 발명이라는 것이 있고 지식과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인간 본성의 문제, 죄의 문제, 인간 관계의 문제, 종교적 문제, 도덕적 문제, 남을 미워하고 속이고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 돈 사랑, 육체적 쾌락 사랑, 명예심, 교만 등의 일들은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고 변한 것이 없다. 죄인인 인간은 늙고 병들고 죽는다.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이 지나가고 우리의 기억에서 희미해진다. 또 다음 세대들도 우리에게 대해 똑같이 그러할 것이다. 해 아래는 새것이 없다.

**[12-13절]**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하늘 아래서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은 결국 괴로운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셔서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삶은 괴로운 것이다. 아기를 출산할 때부터 심한 고통이 있고 출산된 아기도 울면서 세상의 삶을 시작하고 인생의 여정 전체가 수고로운 삶이다.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은 다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사람이 바람을 잡아보려고 해도, 그래서 그것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보아도 아무것도 없는 바람뿐인 것처럼, 사람의

모든 행사는 지나고 보면 공허하고 그가 죽고나면 더욱 그러하다. 사람이 출생하여 학교에 가고 학교를 나오면 취직하고 결혼하고 또 자녀를 출산하고 기르고 학교에 보내고 졸업하면 취직하고 또 결혼한다. 사람은 이렇게 하다가 하나씩 죽는 공허한 삶을 사는 것이다.

**[15절]**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다.

사람이 늙으면 허리도 구부러지고 그 구부러진 허리는 곧게 할 수 없다. 또 이지러진 것 곧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셀 수 없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 늙으면 없어진 시력을 회복하기 어렵고 없어진 청력도 회복하기 어렵고, 없어진 기억력과 기력도 회복하기 어렵다.

**[16-18절]**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체험했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이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더함이니라].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원문)는 부친 다윗을 포함하여 전 세대의 모든 지혜자들을 가리킬 것이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지혜를 많이 얻어서 그 지혜의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살펴보고 묵상하였으나 번뇌와 근심만 더할 뿐이었다.

본장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세상의 헛됨을 알자.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2절).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헛된 영광과 헛된 만족을 구하지 말고 세상적 지혜와 지식도 구하지 말자.

둘째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자. 이것이 전도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이며(전 12:13)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이다. 하나님께서만 헛되지 않으시다. 하나님만 영원하시다. 하나님만 의미가 있으시고 가치가 있으시다. 하나님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참 만족이 있고 참 평안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천국만 소망하고 그의 뜻만 순복하자.

## 2장: 쾌락도, 지혜도, 수고도 헛됨

[1-1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 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에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道)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육신의 즐거움이 헛됨을 말한다. 그는 웃음을 미친 것이라고 표현한다. 그는 술을 마시며 각종 사업을 크게 벌렸다. 집들을 짓고 포도원, 동산, 과원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고 못을 파고 소와 양떼를 많게 하고 은금과 보배를 쌓고 노래하는 자들과 첩들을 많이 두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무익함을 깨달았다.

[12-17절]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꼬. 행한 지 오랜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난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난 같도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의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랠 것임이라. 오히려,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 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 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임이로다.

12절의 ‘망령됨’이라는 원어(홀렐로스  $\text{māhāhā}$ )는 ‘미친 것’이라는 뜻으로(madness)(KJV, NASB, NIV) 전도서에만 나온다(1:17; 2:12; 7: 25; 9:3; 10:13). 솔로몬은 지혜가 우매함보다 나으나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며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며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다 헛되다고 말한다. 우리는 일시적인 것, 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에 가치를 두지 말아야 한다.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우리의 일생이 손 넓이만큼밖에 안되고 그림자 같다고 말한다(시 39:5-6). 바울도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했다(고후 4:18).

[18-23절]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한하였노니[싫어 하였나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라미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라.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도 헛되다. 본문에는 ‘수고’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온다. 모든 수고가 헛된 까닭은 그가 수고하여 이론

모든 결과를 그의 뒤에 오는 사람이 누리고 관리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많이 수고하지만, 그 결과를 즐기는 시간은 너무 짧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마음으로 실망했다고 말한다. 사람은 자기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자기가 별로 쓰지 못하고 다음 사람에게 유업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밤에도 쉬지 못하는 사람의 수고는 수고한 당사자에게 헛되고 큰 해가 되는 일일 뿐이다.

[24-26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樂)(트브 기브)[좋은 것,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라.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라고 말한다.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즐거움에 대해 반복해 말한다(3:13; 5:18; 8:15).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육신의 쾌락의 헛됨과 사람의 지혜와 지식의 헛됨과 세상의 모든 수고가 헛됨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하고,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고, 이 세상의 일들에만 힘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주께서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말씀하셨다(요 6:27, 29). 우리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만 바라며 하나님의 계명대로 의와 선을 행하기를 힘써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경건하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면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감사하게 누릴 수 있다.

## 3장: 모든 일이 때가 있음

### 1-13절, 시간과 영원

[1-8절] 천하에 범사가 기한[정한 때]이 있고 모든 목적[일]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포기할]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1절의 ‘기한’이라는 원어(제만 תָּמַד)는 ‘정한 때’(BDB, NASB)라는 뜻이고, ‘목적’이라는 원어(케페츠 מְטָרָה)는 ‘기쁨, 목적, 일’(BDB)이라는 뜻이다. 모든 것에는 정한 때가 있고 하늘 아래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사람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것은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출생하고 자기가 원치 않아도 죽음을 맞이한다. 씨를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사람을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다. 어떤 사람은 병이나 사고로 갑자기 죽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기도 한다. 집을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사람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사람이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돌이 필요치 않고 오히려 장애가 되어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모아서 집을 짓거나 담을 세울 때가 있다. 사랑하는 여인을 안을 때가 있고 안아서 는 안 될 때가 있다. 어떤 귀한 물건은 끝까지 찾을 때가 있고 어떤

것은 조금 찾다가 포기할 때가 있다. 어떤 것은 쓸모가 있어서 지킬 때가 있고 어떤 것은 쓸모가 없어 버릴 때가 있다. 어떤 천은 찢어버릴 때가 있고 어떤 천은 찢어진 부분을 꿰맬 때가 있다. 어떤 일에는 대의를 위해 잠잠할 때가 있고 어떤 일에는 사실을 증거하고 변명할 때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큰 죄인이라도 사랑해야 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가족이라도 미워해야 할 때가 있다. 어떤 경우는 이웃 나라와 전쟁해야 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화해해야 할 때가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경우가 있다. 다니엘 11:27, 29, 35, “작정된 기한”(3번). 사람들의 개인의 삶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그러하다. 마가복음 1:15,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9-11절]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일하는 자는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는가? 사람의 일하는 수고는 물질적 유여함이라는 유익이 있지만, 결국 늙고 죽을 것이므로 영속적 가치와 유익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고로운 삶을 사람들에게 주셨다. 그러나 그가 창조하신 하늘과 땅, 산과 들과 바다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따라 매우 아름답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지나가는 세상, 늙고 쇠하고 죽고 마는 시간의 삶 속에서 장수(長壽)를 복으로 주셨고 또 영생을 사모하게 하셨다. 사람은 시간 속에 살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시는 일들의 시종(始終)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사람은 세상의 창조의 때나 세상의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출생의 때와 자기 자신의 죽음의 때

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의 시작과 끝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장 지혜롭고 선하신 뜻대로 또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빨리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인간의 참 의미와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영원하신 창조자와 섭리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다. 개인과 세계의 모든 근원적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님 안에와 그의 말씀 안에 있다.

**[12-13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본문은 수고로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선물에 대해 말한다. 첫째는 기쁨과 즐거움이고, 둘째는 선을 행하는 것이다.

사람이 수고로운 삶 속에서도 기뻐하고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복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은 물론 첫째로 영적인 즐거움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안과 즐거움에 있다(롬 14:17).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다(갈 5:22). 빌립보서의 주요 교훈은 기뻐하라는 것이다. 성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항상 기뻐하는 생활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살전 5:16). 그러나 이 즐거움은 주 안에서 누리는 육신적 즐거움도 포함한다. 전도서는 이 사실을 여러 번 증거했다. 전도서 2:24,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3:22,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5:18,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8:15,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온 것이 없음이라.” 9:9,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께서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네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기독교는 쾌락주의도 아니지만 금욕주의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식물을 감사히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다. 바울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고 할 것이나 그것은 미혹케 하는 귀신의 가르침이며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했다(딤후 4:1-5).

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복이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며(엡 2:10),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딤후 2:14).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구주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다. 이것은 창조의 본래의 모습이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해야 한다.

시간 속에 사는 사람의 참 의미와 가치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그의 말씀인 성경 배우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알자. 또 죄로 인해 참 지식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자.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소망과 현세의 복들을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힘써 선을 행하자.

## 14-22절, 인생은 죽는 존재임

[14절]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세상의 허무함과 대조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며 그의 행하시는 모든 것이 그러하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 곧 그가 창조하신 세상과 그 운행이 영원하고 그가 섭리하시는 일들도 그러하다. 욥기 23:13-15,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시편 33:11, “여호와와 의 도모 [뜻]는 영영히 서고 그 심사[생각]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사야 51:6,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시는 일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 없다. 그는 거기에 무엇을 더할 지혜와 힘도, 자격도 없고 뺄 힘도, 자격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시요 인간은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시요 인간은 보잘것없는 풀과 같은 존재이며,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순간, 그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신 존재와 그의 전지, 전능하신 섭리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 세상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들은 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 해 아래는 참으로 새것이 없다(전 1:9).

[16절]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

**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세상에서 재판하는 법정은 법이 바르게 집행되어야 하며 공의가 행해져야 하는 곳이다. 의(義)는 하나님의 법에 맞는 것이다. 그것은 보통 사회법에도 맞고 또 이성과 사리와 양심에도 맞고 거짓되지 않고 편벽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법정에도 불의와 악이 있다. 이것이 옛날부터의 현실이다. 왜 그러한가?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모든 욕심, 이기심, 물질욕, 명예욕, 거짓된 본성, 악한 본성, 시기심, 미움, 남을 해치려는 마음 등의 이유로 법정에서까지 불의와 악을 행하는 것이다.

**[17절]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를 때가 있음이라 하였도다.**

본문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말한다. 모든 일이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전도서 12:14,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로마서 2:6-8,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요한계시록 20: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8절]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전도자는 앞에서 말한 대로 법정에 악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의 필요성을 재확인했을 뿐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하셔서 그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뜻이 있다고 말한다. 법정에서의 악과 불의, 억울함과 학대당함을 통해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며 짐승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19-21절]**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을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흠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흠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이 짐승보다 낫지 않다는 깨달음은 그 둘이 동일하게 호흡하다가 결국 동일한 죽음을 당한다는 사실을 통해 더욱 분명해진다. 사람의 몸은 짐승의 몸과 똑같이 흠으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사람도, 짐승도 다 흠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다(창 2:7, 19; 시 104:29). 물론 인간의 혼(루아크 חַיָּה)[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루아크 חַיָּה)[호흡]은 땅으로 내려간다. 사람의 영혼은 짐승과 달리 불멸적이며(마 10:28) 하나님께 나아가 심판을 받아 영생이나 영벌을 받지만, 짐승의 호흡은 불멸적이지 않고 죽으면 없어진다.

**[22절]**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후사(身後事)[죽은 후의 일을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라.

‘자기 일’이란 사람이 세상에서 하는 다양한 직업과 책임과 취미의 일들을 가리킬 것이다. 사람은 개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일들을 행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들과 교회에 주신 직분들과 은사들은 다양하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권면하고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등 여러 은사들을 주셨다(롬 12:6-8).

모든 사람이 자기의 하는 일을 즐거워하며 행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 전도서 2:24는 사람이 수고하는 중에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복되다고 말했고, 3:12-13도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다. 주부는 즐거운 마음으로 집안일을 해야 한다.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손으로 집안일을 하는 자이다(잠 31:12, 13, 15, 27). 베드로는 장로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교인들을 돌보아야 한다고 권면하였고(벧전 5:2-3), 바울은 젊은 여자들이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집안일을 하라고 교훈하였다(딤후 2:5). 또 바울은 성도들이 즐거움으로 헌금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교훈하였고(고후 8:1-3; 9:2), 또 종들이 단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들을 섬겨야 한다고 말했다(엡 6:5-8; 딤후 2:9-10).

사람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즐거워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며(2:24) ‘하나님의 선물’(3:13)이다. 그가 죽은 후에 될 일을 보게 하려고 그를 다시 살려 데려올 자가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살아 있는 동안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 속에서 항상 즐거워하며 일하고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자. 이 세상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세세토록 있다(벧전 1:24-25). 하나님 안에만 영원한 삶이 있다.

의를 행해야 하는 법정에도 불의가 있는 것을 볼 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임이 분명하다. 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으며, 이 점에 있어서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사람은 자신이 죽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소망해야 한다.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것은 그의 분복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무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일로 생각하며 즐거움으로 하자.

## 4장: 학대, 시기, 친구 없음

[1-3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있는 산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들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sup>1</sup>났도대.

세상에는 학대받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지만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다.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학대받는 자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세상에 불의, 학대, 억울함 등이 있음을 볼 때, 세상은 분명 이상적이지 않고 살 만한 좋은 곳이 못된다. 이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 세상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은 자가 더 복되며, 아니, 아예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복되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전도서 12:14,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또 성경이 밝히 증거하는 대로, 내세(來世)가 있다. 의인에게는 복된 천국이 있고 악인에게는 심히 두려운 지옥이 있다. 또 이 세상에서도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 이시다. 바울은 고난 중에 위로를 받았고 위로하는 자가 되었다(고 후 1:4). 성경은 위로의 책이다(롬 15:4). 그러므로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고난 중에도 낙심치 않고 소망 중에 담대하였다(히 10:34-35).

[4절]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 가지 교묘한 일’(콜 키쉐론 함마아세 כָּל-כְּשָׁרוֹן הַמְּעֵשֶׂה)이라는 원어는 ‘일의 모든 숨씨, 성취, 성공’(BDB, KB)이라는 뜻이다. 사람이 모든 수고를 하고 일을 성공해도 오히려 그로 인해 이웃의

시기를 당하니, 그것도 헛된 일이라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좋은 인간관계는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 세상은 생존경쟁과 시기 질투의 싸움터와 같다.

**[5-6절]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을 거둔다’는 말은 ‘손을 접다, 손을 모은다’는 뜻이다. 그것은 게으른 자의 모습을 묘사한다(잠 6:10; 24:33).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여서 게으름이 행복은 아니다. 우매자는 게으르고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한다. ‘자기 살을 먹는다’는 말은 우리말에 ‘제 살을 깎아 먹는다’는 말과 같다. 우매자의 게으름은 결국 자신을 망친다.

소득이 많은 것도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다. 그것이 헛되고 마음고생일 뿐일 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잠언 15:16-17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보통]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한다. 적은 소득이라도 평온함이 있는 것이 더 낫다. 행복은 소득의 많음에 있지 않고 마음의 평안에 있다. 그런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는 평안의 주님이시다(살후 3:16). 또 계명을 순종하는 의로운 삶에는 강 같은 평안이 약속되어 있다(사 48:18).

**[7-8절]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마지아니 하며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니[하고 묻지 아니 하나니](NASB, ≍KJV)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어떤 사람은 쉬지 않고 수고하여 돈을 번다. 그는 번 돈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쓰고 즐길 줄 모르고 계속 벌기만 한다. 그에게는

돈을 버는 목적이 없다. 그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낙을 누릴 줄도 모르고 일만 한다. 그러므로 그의 수고는 참으로 헛되다. 인간은 돈을 버는 기계인가?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가?

사람은 삶의 바른 목표가 필요하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사야 43:7,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디도서 2:14,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돈을 쓸 때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 즉 전도와 교회 건립을 위해 쓰고, 둘째는 나를 위해 적당히, 절약해 쓰고, 셋째는, 주의 이름으로 이웃을 위해 구제하는 데 써야 한다.

**[9-10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동료]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하면 무슨 일이든지 더 잘 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 둘 중에 하나가 혹 실수하거나 낙심할 때에도 다른 사람이 그를 붙들어 주고 그를 위로, 격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붙들어줄 친구가 없는 사람은 불행할 것이다.

**[11-12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의 친근한 교제는 서로에게 기쁨과 힘이 될 것이다. 또 두 사람이 단합하면, 어려운 일이 올 때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본문은 친구들 간의 교제와 협력의 유익에 대해 말한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은 서로에게 해를 줄 뿐이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15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께서 명하신 선한 일들에서 일심단합하기를 원하신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듣기를 원했고(빌 1:27), 또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같이 하라”고 교훈하였다(살전 5:11). 그러려면 우리는 마음을 같이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야 한다(빌 2:2-3).

**[13-16절]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청년]은 높고 둔하여 간함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저는 그 나라에서 나면서 가난한 자로서 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버금으로 대신하여 일어난 소년[청년]과 함께 있으며 저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높은 왕은 교만하고 완고하고 미련하여서 바른 조언과 충고를 받을 줄 모르나, 그런 왕보다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청년이 더 낫다. 본문은 한 청년이 자기 나라에서 가난한 자로 나서 자랐고 고난을 받아 옥에도 들어간 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로 왕이 되었다고 말한다. 본문은 요셉의 경우를 말한 것 같다. 요셉은 왕은 아니지만, 왕의 제2인자로 왕을 대신하여 통치하였다. 백성들은 높은 왕 대신에 왕이 된 그 청년을 지지하고 그의 통치받기를 좋아했다.

16절의 ‘후에 오는 자들’은 다음 세대의 사람들 혹은 왕들을 가리키는 것 같다. 한 때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던 그는 다음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배척을 받기도 한다는 뜻일 것이다. 세상의 권력은 무상하며 사람들의 여론도 변화무쌍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의지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이사야 2:22,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으나 자기 몸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고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었다(요 2:23-25).

본장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준다. 첫째로, 우리는 학대와 시기가 있는 세상에서 공의의 심판자 하나님을 참 위로자로 삼자. 이사야 40:1,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51:12,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여늘 나여늘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둘째로, 우리는 소득이 좀 적어도 평온한 삶을 구하자. 잠언 15:16-17,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보통]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1,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에 인생의 참 행복이 있다.

셋째로, 우리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수고하는 허무한 사람이 되지 말고, 삶의 바른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일과 선한 일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 되자. 고린도전서 10: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지식과 생각의 일치와 겸손과 사랑의 덕으로 서로 좋은 친구들이 되고 좋은 동역자들이 되자. 그래서 일심단합하여 복음을 널리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력하며 힘쓰자.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시편 133:1,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 5장: 하나님을 경외함, 재물이 헛됨

### 1-7절, 말씀 듣기, 기도, 서원

[1절]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나라.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신약교회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린다(딤후 3:15).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발을 삼가야 한다. ‘네 발’ 혹은 ‘네 발 걸음들’(원문)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가리킬 것이다.

본문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가르친다. 본문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우매자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예배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경외하고 악을 버리고 의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라고 말했다(삼상 15:22). 호세아 6:6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인애(仁愛)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말씀하셨다. 주께서는 그를 대접하려고 분주한 마르다보다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칭찬하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한가지가 필요하니라(전통본문).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눅 10:41-42).

[2-3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나라. 그런즉 마

**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우리는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초월자이시며, 사람은 유한하고 낮고 비천한 피조물이며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수다스럽게, 무례하게 기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본문은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고 말한다. 일이 많으면 헛된 생각도 생기고, 또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말도 생긴다.

일반적으로, 지혜자는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말하는 자이다. 잠언 10:19,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5:28,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잠언 17:27,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존한 자는 명철하니라.” 야고보서 1:19,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3:2,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러해야 한다. 주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다(마 6:7-8).

**[4-7절]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깊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깊으라. 서원하고 깊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네 입으로 네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

**로 네 말 소리를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라.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서원’은 하나님께 맹세로 약속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서원하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야 한다. 민수기 30:2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고 말한다. 시편 15:4, “[주의 성산에 거할 자는]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사사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서원하였고 그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를 맞았던 외동딸을 번제로 드렸다(삿 11:30-31, 34-35, 39). 한나는 아들 주시기를 구하며 서원하였고 사무엘을 얻은 후 그를 하나님께 바쳤다(삼상 1:10-11, 26-28).

그러나 우매자는 쉽게 서원하고 쉽게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함이 그에게 없기 때문이다. 사울 왕이 그런 자이었다. 그는 맹세한 것을 쉽게 저버렸다. 서원을 갚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벌받을 죄가 된다. 신명기 23:21,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라.”

본문은 또,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고 말한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중히 기도하며 서원하고 서원한 것은 꼭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 성경말씀 듣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자.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할 때 성급한 마음으로 하지 말자. 우리는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며 한가지씩 차근차근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무엇을 서원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하고, 또 서원한 것은 해(害)가 되어도 반드시 갚아야 한다.

## 8-12절, 학대, 재물의 유익과 폐해

[8-9절]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는]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더욱이] 땅의 이익은 못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본문은,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한다. 세상에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공의를 박멸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다. 우리는 그것을 놀라지 말아야 한다.

본문은, “[이는]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고 말한다. 문맥적으로 또 성경의 교훈적 성격을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을 묘사한 것이라고 본다. 땅 위의 높은 관리들보다 더 높은 자, 즉 온 우주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계시다. 세상에서는 높은 관리가 낮은 자의 행위를 감독하지만, 그것은 불완전하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시고 보우하신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5:1, 4,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본문은 또, “[더욱이] 4) 땅의 이익은 못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고 말한다. 땅의 이익, 즉 밭에서 나는 소산(所産)(곡식, 채소, 과일, 열매, 기름 등)은 모든 사람에게 또 왕에게도 유익을 준다. 거기에는 왕과 평민의 구별이 없다. 그러므로 권세자들은 가난한 서민들을 무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

4) 왜 는는 보통 ‘그리고, 또’라고 번역되지만, 영어성경은 ‘더욱이’(more-over)(KJV), ‘결국’(after all)(NASB) 등으로 번역하였다.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탐심은 더 가지려는 마음이다. 탐심은 끝없는 수렁과 같아 탐심을 가진 자는 만족이 없다. 사람은 탐심을 버려야 그 부족감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탐심을 정죄하며 경계하였다.

출애굽기 20: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누가복음 12:15,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에베소서 5:3, 5,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이것을 정녕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탐심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악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체험하기 때문이다. 시편 23: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태복음 6:31-32,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성도는 이 세상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하며 살 수 있다(딤후 6:7-8; 히 13:5).

**[11-12절]**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라.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재물의 유익이 많지만, 재물이 많아지면 그것을 쓰는 자도 많아진다. 한 사람의 쓸 수 있는 재물의 양은 제한적이다. 한 사람이 먹는

세 끼 밥의 양도 제한적이다.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거나 비만으로 해가 될 뿐이다. 실상, 재산이 많은 주인은 눈으로 그것을 보는 즐거움을 가질 뿐이지, 그것을 혼자서 다 쓰는 것은 아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땀 흘리며 일하기를 원하시며 또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잔다. 그러나 부자는 단잠을 못 잔다. 사람은 너무 배가 부르면 깊은 잠을 자지 못하기도 하고 부자는 보물을 도적 맞을까봐 편안한 잠을 자지 못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재물은 유익이 있지만, 개인이 쓸 수 있는 양은 제한적이고, 또 재산이 많으므로 단잠을 자지 못하는 일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재물의 유익과 폐해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재물을 최고 가치로 여기며 살아서는 안 된다. 성경은 오히려 재물을 경계하고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버리라고 가르친다. 시편 62:10,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置心)치[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잠언 23:4,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 . .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디모데전서 6:9-10,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윤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사람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그들을 통해 유익도 있기 때문이다.

탐심은 만족이 없고 일종의 우상숭배이다. 우리는 탐심을 다 버리고,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을 믿고 항상 자족한 마음으로 살아가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자. 우리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치 못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눅 12:16-21),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자가 되자.

### 13-20절, 재물의 헛됨, 복된 삶

[13-14절]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심한 폐해) 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 되도록 지키는 것이다.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한다”는 말은 “재난을 인해 그 재물을 잃어버렸다”는 뜻이다. ‘재난’은 도난, 사기, 어음부도, 파산, 화재, 교통사고, 중한 병 등을 가리킬 것이다. 돈을 많이 소유한 자가 돈을 쓰지도 않고 아꼈는데, 재난을 당해 다 소비하고 자기 자녀를 먹일 음식거리를 살 돈도 없는 것이다. 재물은 참 허무한 것이다. 그러므로 잠언 23:5는,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녕히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고 말하였고, 사도 바울도 재물을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말하였다(딤후 6:17).

재물은 정함이 없을 뿐 아니라, 신앙에 방해물과 시험거리가 된다. 주께서는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로 비유하셨고(마 13:22) 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심히 어려우며 심지어 악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다(마 19:23-24). 또 바울도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라고 교훈하였다(딤후 6:9-10). 재물은 허무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다.

[15-16절]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폐단(심한 폐해)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라.

사람은 평생 동안 많은 재물을 벌고 재난이 없이 그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죽는다. 사람은 모태에서 빈손으로 나왔고 죽을 때도 빈손으로 죽는다. 그는 금은보석이나 돈이나 예금 통장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는 수의 한 벌, 관 한 개로 족하다!

그래서 본문은 인간의 그러한 삶을 ‘심한 폐해’라고 표현하고 또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 곧 헛된 수고라고 표현한다. 사람이 일평생 돈을 번다고 수고하였으나 결국 허무하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시편 49:10-12는 말하기를,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의 속생각에 그 집이 영영히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田地)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함이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고(눅 12:15), 풍년을 만난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눅 12:20).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고 교훈하였다(딤후 6:7-8).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카마스 하르베 קָאָמַס הָאֲרָבַי) [많은 고민](KJV, NASB)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번뇌’라는 원어는 ‘많은 고민’이라는 뜻이다. 본문은 세상적, 물질적 욕심을 가진 인간의 삶이 곤고하고 불행함을 증거한다. 사람은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는다. 그는 시간적으로도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한다. 또 사람은 양심에 거리는 죄 가운데 살면서 기쁨과 평안이 없고 근심과 걱정, 우울함과 긴장이 많다. 모세의 말대로,

사람은 그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시 90:10). 주 예수께서는 사람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라고 표현하셨다(마 11:28).

또 사람은 질병도 있다. 신체적인 질병도 있지만, 정신적인 질병도 있다. 병원들은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로 항상 붐빈다. 또 사람은 분노도 있다. 곤고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신경질과 짜증을 부리고, 불평과 불만, 미움과 적개심을 품고 사는 일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그것과 다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기뻐하며 살고(살전 5:16) 평강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산다(살후 3:16). 또 그들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인다(빌 4:5).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자들은 몸도 건강하다(잠 3:7-8). 또 그들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살전 5:18) 그들을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마 5:44). 또 그들은 부지런하게 자기 일을 하고, 이 세상에서 비록 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자족하며 사는 법을 배우며 실천한다(딤후 6:8).

**[18절]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혹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사람의 일평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사람의 출생과 죽음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에 이 세상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에 죽는다. 사람의 일생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하다(시 90:10).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존재와 같다(마 11:28). 그것은 죄의 결과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죄의 형벌로 종신토록 수고하며 얼굴에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선언하셨고 하와에게는 해산하는 수고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창 3:17). 그러나 이 저주받은 세상, 수고로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데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분복이다.

[19-20절]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의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것과 수고하는 중에 즐거움을 얻게 하시는 것, 또 사람이 자신의 일생의 길이가 얼마나 될지, 그가 언제 죽게 될지 별로 생각지 않고 마음에 기뻐하며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한다. 수고롭고 허무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사람이 즐거워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이 전도서의 한 진리이다.

전도서 2:24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라고 말했고, 전도서 3:13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다. 또 전도서 9:9는,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을 감사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지만, 재물을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내거나 재물의 많음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천국만 소망하며 살자.

우리는 물질에 대한 모든 탐심을 버리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즉 자족하며 살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평생 어두운 데서 사는, 슬픔과 번뇌와 병과 분노가 많은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건강과 의식주의 공급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자.

우리는 수고롭고 허무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낙과 행복을 하나님의 복이요 우리의 분복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누리자.

## 6장: 낙이 없는 삶

[1-2절] 내가 해 아래서 한가지 폐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폐단’이라는 원어는 ‘폐해, 불행한 일’을 뜻한다. ‘중한 것’이라는 원어(랍바 חָמֵד)는 ‘많은 일, 흔한 일’(NASB)이라는 뜻이다. 본문이 말하는 어떤 사람은 물질적 부나 세상적 성공에 대한 소원을 가졌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받았다. 그는 돈을 많이 벌었고 재산을 모았고 또 세상적으로도 출세하여 명예도 얻었다. 그러나 그는 몸에 심각한 병이 들었거나 큰 환난과 재난 때문에 그것을 누릴 힘이 없었고,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렸다. 참 기가 막힌 불행이었다. 그래서 본문은 그런 상황을 ‘헛되어 악한 병’이라고 표현하였다.

세상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다. 왕위에 올라 권세와 영광을 얻었다고 생각한 지 7일 만에 모반을 당해 폐위된 왕도 있다. 대통령이 나 국회의원이거나 장관이 되었으나 대형사고나 큰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물러난 자들도 있다. 아내가 버스비까지 절약하며 직장생활하고 저축하여 집을 장만했으나 몸에 중병이 들어 죽고 후처가 들어와 누리는 경우도 있다. 세상의 행복은 사람이 계획하고 예상한 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행복은 그의 지혜와 능력 안에 있지 않고 섭리자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게 하라]”고 교훈하였다(딤후 6:17).

[3-6절] 사람이 비록 일백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

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  
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  
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못하니]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한다 할지라도 수고로운 세상에서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한다면, 또 그 몸이 매장되지도 못한다면,  
낙태된 자가 그보다 더 나을 것이다. 낙태된 자는 이 세상의 슬픔도,  
불행도, 허무도 알지 못하고 죽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사람이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한다면  
결국 다 한곳 즉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니 오래 산 것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인가?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동안 낙을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 무덤에 들어갈진대 세상에서 50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1000년을 살든지 그것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그러므로 100명의 자녀를 낳은 것이나 1,000년의 갑절을 사는 것  
이 아무런 복이 되지 못한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왕의 권세와 영광  
을 누렸고 자녀를 70명이나 낳았으나 그 자신은 전쟁에서 죽었고,  
그 아내 이세벨은 예후의 반란 때 창문에서 내려 던지워 죽임을 당  
했고, 그의 아들들 70명은 공부하는 도중에 모조리 목베어 죽임을 당  
하였다. 한두 명의 자녀라도, 길지 않은 생이라도 하나님께서 주  
시는 평안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

심령의 낙은 단순히 육신적 만족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령의 참 평안에서 나오는 복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4편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라고 고백했다(시 4:7-8).

**[7절]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라.

사람의 수고는 결국 다 그의 입을 위한 것, 즉 먹고사는 그의 육신의 생활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한다. ‘식욕’이라는 원어(네페쉬 **שָׂפוּן**)는 ‘영혼’이라는 말이지만, ‘욕구, 식욕’이라는 뜻도 있다(BDB). 그러나 그 영혼의 만족이 없다고 번역해도 뜻이 된다. 사람의 식욕뿐 아니라, 영혼의 만족도 끝이 없어 보인다.

**[8절]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인생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그]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하고.**

‘그 가난한 자’는 앞에서 말한 지혜자를 가리키는 것 같다. 본문은 지혜자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처신하는 일이나 그래서 돈을 버는 일에서 우매자보다 분명히 나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도 다 허무하다는 뜻일 것이다. 그의 수고가 그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하고 그들은 다 똑같이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9절]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눈으로 보는 것은 실제로 낙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 ‘심령의 공상’이라는 원어(할라크 나페쉬 **שִׁלְשִׁיטָה-נַפְשׁוֹת**)는 ‘영혼의 걸음’이라는 말로서 영어성경들은 ‘영혼의 욕구하는 바’(NASB) 혹은 ‘욕구의 방랑’(KJV, NIV)이라고 번역하였다. 심령으로 아무리 좋은 욕구를 가져도 실제로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 것보다 못하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수고한 후 먹고 마시는 것도 결국 헛되며 공허하다.

**[10절]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 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룰 수 없느니라.**

해 아래는 새것이 없다. 전도서 1:9-10,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

리 오래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하늘도, 땅도, 산도, 바다도, 해와 달과 별들도 옛날부터 불려오던 이름들이다. 만물이 다 그렇고 인간도 그렇다. 사람은 창조 때부터 사람(아담)으로 불려왔다.

또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음 받았으나 그의 육체는 흙으로 지음 받아 연약하며 죄를 지은 후에는 늙고 병들고 죽는 존재가 되었다. 인간은 피조물이요 죄인이다. 그의 허무함과 불행은 특히 그의 죄인 됨에서 나왔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될 존재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자, 즉 창조주 하나님과 다룰 수 없다. 그는 창조주 앞에 두려움과 겸손으로 엎드려야 한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과 같다고 고백했다(창 18:27). 욥기 25:6은 인생을 벌레와 구더기라고 표현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야”라고 부르셨다(사 41:14). 많은 고난을 받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말했다(고전 4:13). 이런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과 다투는 것은 교만한 일이요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하게 섬기며 그의 모든 말씀을 다 믿고 순종해야 한다.

**[11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라.**

‘일’이라는 원어(테바림 מֵאֲמָלָה)는 ‘말들’ 혹은 ‘일들’이라는 뜻이다. 전도서 12:12는 “여러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고 말한다. 솔로몬은 많은 일들을 해보았다(전 2장). 그는 집들도 건축해 보았고 포도원과 과원도 만들어 보았으며 합창단도 만들어 보았다. 그러나 사람이 말이 많으면 헛된 말도 늘어나고 일이 많으면 헛된 일도 증가한다. 이 세상에 헛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며 참으로 유익하고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12절]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토브 טוב '좋은 것, 행복')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身後)에(after him)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오.**

사람의 일생은 그림자같이 덧없이 지나간다. 시간의 흐름은 붙들 어 둘 자가 없고 빠르고 허무하다. 그러므로 욥은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했고(욥 14:1-2), 다윗은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라고 말했고(시 144:4), 또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고 고백했다(대상 29:15). 또 야고보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하였다(약 4:14). 이런 인생에게 무슨 낙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는가? 또 죽은 후에 그의 집이 나 그의 일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는가?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재물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자. 우리는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자.

우리는 단지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장수(長壽)의 복을 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항상 구하며 누리자.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헛된 것임을 알고, 우리는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피조물이며 죄인임을 알고, 결코 하나님과 다투지 말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그의 모든 계명들에 순종하자.

우리는 세상의 일들이 다 헛됨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일, 즉 믿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힘쓰자.

## 7장: 지혜와 어리석음이 대조됨

### 1-7절, 좋은 이름, 초상집, 우매자

[1절] 아름다운 이름(토브 쉘 **טוב שם**)[좋은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낮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좋은 이름은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좋은 이름이란 경건하고 선한 사람이 죽은 후에 그에게 붙여지는 이름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등의 이름이다. 보배로운 기름은 값비싼 향유를 가리킨다. 좋은 이름은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값비싼 향유는 잠시 동안 좋은 향기를 내지만, 그것은 물질적 향기에 불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사라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좋은 이름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또 역사 속에 남는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린 자로 오래 기억되며,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오래 기억된다.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오래 기억되며, 다윗은 믿음과 찬송의 사람으로 오래 기억되며, 히스기야는 경건한 자로 오래 기억된다. 이들은 다 후대의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되고 있다.

죽는 날은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죽는 날은 사람이 일생을 마감하는 날이다. 그 날 의인은 그의 의로운 생을 정리하고 결산하며 그의 이름을 남긴다. 주 예수께서는 가장 좋은 이름을 남기셨다. 죽는 날은 또 의인이 죄와 슬픔, 질병과 고통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날이다. 그러나 출생하는 날은 사람이 생을 시작하는 날로서 어떻게 살지 미지수이다.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면 그의 생이 복되지만, 믿음 없이 살고 죄만 짓고 살면 그의 생은 큰 화가 된다. 주 예수님을 배신하고 악한 자들에게 그를 팔아 넘겼던 가롯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던 제게 좋을 뻔한 자'(마 24:26)이었다. 사람은 생일보다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2-4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사람이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죽음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없고 경건하고 바르고 근신하고 절제하는 생활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기 쉽다. 그러나 상을 당한 집에 조문하러 가면,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죽으며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유익하다.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며 진실하고 정직해야 하고, 또 죽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일, 책망받을 일, 양심에 거리끼는 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버려야 한다.

또 슬픔은 웃음보다 낫다. 왜냐하면 사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써 마음이 좋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이 웃을 때는 자기 부족과 연약을 잊어버리고 죽음의 일도 잊어버리기 쉽고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며 죽음을 대비할 기회를 놓치기 쉽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을 살피며 자신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벌 때문에 슬퍼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특히 회개의 슬픔은 유익이 많다. 주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셨다(마 5:4).

그러므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즐겁게 노는 집에 있다. 우매자들은 잔치집에 모여든다. 그들은 현재의 육신적 즐거움을 좋아한다. 그러나 지혜자들은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참석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기에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더욱 가다듬게 되고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를 얻기 때문이다.

**[5절]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책망을 좋아하는 자가 없고 책망 자체는 듣는 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겁게 하지만, 경건한 자의 바른 지적과 책망은 유익을 준다. 책망을 듣는 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잠언 6:23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말했고, 잠언 27:5-6은,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고 말했다. 또 옛날부터 참 선지자는 책망의 설교를 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고 말했다(렘 28:8). 책망을 잘 듣는 것이 복이다.

우매자의 노래는 듣기는 좋으며 마음을 즐겁게 할지 모르나 아무 유익이 없다. 그것은 전도서 2:2에서 전도자가 웃음을 논하여 미친 것이라고 표현하고 희락을 논하여 저가 무엇을 하는가라고 말한 것과 같다. 선지자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유다 백성이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지절거렸다고 증거하며 책망하였다(암 6:5).

사람의 참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만 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창조자요 섭리자이시기 때문이다. 구주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순종해야 하고, 그럴 때 현세와 내세에 풍성한 평안과 복을 누릴 것이다.

**[6-7절] [이는]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의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헛됨이니라]. [참으로](KJV)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케 하느니라.**

우매자의 노래소리보다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더 나은 이유는 우매자의 웃음소리가 솔 밑에서 가시나무의 타는 소리 같으며 이것도 헛되기 때문이다. 솔 밑에서 가시나무의 타는 소리는 일시적으

로는 요란하지만 곧 그친다. 우매자의 웃음소리도 그러하다.

또 탐학은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은 사람의 명철을 부패시킨다. ‘탐학’이라는 단어(오쉐크 פִּשְׁעוֹ)는 ‘압제, 토색[강제로 빼앗음], 토색으로 얻은 이익’을 뜻한다(BDB). 이것은 위협하여 강압적으로 빼앗은 이익을 가리킨다. 이것은 개인에게나 국가에 다 적용된다. 성경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고 교훈한다(고전 5:11).

토색은 탐심에서 나온다. 성경은 탐심을 정죄한다. 롯의 아내는 재산에 대한 애착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다(창 19:26). 아간은 여리고 정복 때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3kg, 또 600g의 금덩이 하나를 탐했다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수 7장).

또 뇌물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명철을 부패시킨다. 출애굽기 23:8,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우리는 의롭게 번 적은 소득이 복됨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잠 16:8)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보배로운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귀히 여기자. 단지 생일을 축하하지 말고 믿음으로 의롭고 선하게 살다가 죽기를 사모하자.

우리는 잔칫집보다 초상집에 참석하자. 우리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며 내세를 준비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며 악을 멀리하자.

우리는 세상의 유행가들이나 우매자들의 노래를 좋아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과 믿는 교우들의 책망과 권면을 좋아하자.

우리는 우매자의 기쁨을 버리고 토색과 탐심 또는 뇌물을 멀리하며 불의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오직 정직하게 번 돈으로 살아가자.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낮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본문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낮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낮다”고 말한다. 아무리 큰 일, 좋은 일이라도, 일의 시작은 시작일 뿐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것은 시작이 중요하다는 뜻일 뿐, 그 일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일이 잘 안 되어서 오히려 해가 되거나 수치가 될 수도 있다. 일의 끝은 일이 성취되어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무슨 일이든지 잘 계획하고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잘 진행하고 치명적 실수를 막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잘 이기고 완성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일을 잘 성취하려면 인내가 필요하고 또 인내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만 가능하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많은 노력과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낙심치 않고 오래 참은 자들이다. 농부도 밭 갈고 씨뿌리고 물과 거름을 주고 김매고 병충해 막고 이렇게 참고 일해야 추수하게 될 것이다. 직장인도 겸손히 참고 일을 배우고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커서 취직하고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는 사람들의 삶 전체가 그러하다. 겸손과 인내는 인생의 성공적의 삶의 필수적인 덕이다.

신앙생활도 비슷하다. 주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성공적인 신앙인을 묘사하시기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하셨다(눅 8:15). 야고보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교훈하였다(약 5:7-8). 믿음은 인내를 수반한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과 인내를 가지고 하자. 세

상에 쉬운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겸손과 인내로 행하면 잘 될 것이다. 신앙생활도 이치가 비슷하다. 우리는 겸손과 인내로 주를 섬기자.

**[9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발하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 니라.**

본문은,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발하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고 말한다. ‘마음’이라는 원어는 ‘영’이라는 말이다.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영의 활동이다. 우리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발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물론, 정당한 노가 있다. 불의를 보고 노하는 의분은 정당성이 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가 있다(나 1:6). 예수께서 채찍으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엮으신 의분도 있다(요 2:15). 핍박하는 악인들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의 징벌을 호소한 시편의 글들도 이런 의미에서이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지나치고 잘못되기 쉽다. 그러므로 잠언은 미련한 자가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고(잠 12:16) 속히 노하며(잠 14:17) 그 노를 다 드러낸다(잠 29:11)고 말한다. 또 야고보서 1:20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교훈한다. 그것은 인내의 한 면모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잠언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며(잠 14:29) 슬기로운 자라고 말하고(잠 19:11), 또 그런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말한다(잠 16:32). 또 주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교훈하셨다(마 5:44).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한다고 말했다고(고전 13:4-5),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교훈했고, 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

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했다(엡 4:26, 31-32).

우리는 쉽게, 급히 노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며 우매자의 행위임을 명심하자.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자.

**[10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쩍이나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본문은,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쩍이나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고 말한다. 사람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비교가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것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인류의 역사도 단편적인 이야기일 경우가 많을 것이다. 역사에는 항상 이면적 이야기가 있음을 안다.

우리는 옛날이 오늘보다 나았다는 불평어린 평가를 버리자. 실상, 옛날에도 어려운 일들은 있었을 것이고 더 많았을 수도 있다. 우리는 모든 현실을 겸손히 긍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현재 어떤 부족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그 원인을 생각하며 자신을 성찰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때문이라면 우리는 즉시 회개하며 그것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지만, 만일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훈련 과정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참고 견뎌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과 돌보심을 구해야 할 것이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성결하게 살면서 미래의 평안을 기대하며 참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많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의 징책하심보다 크시다. 사사기는 111년의 징계의 헛수와 296년의 평안의 헛수를 증거한다. 시편 30:5는,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예비하셨고(여호와 이레)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셨고(만나와 메추라기) 우리

를 인도하셨고(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곳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에베에셀).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현실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간구하자.

**[11-12절]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 . . .**

본문은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한다. ‘햇빛을 보는 자’는 모든 살아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부모로부터 받는 유업과 유산은 물질적 유여함을 주는 좋은 것이다. 그런데 본문은 지혜가 이와 같이 아름답고 유익하고 좋다고 말한다.

그 이유에 대해, 본문은 “[이는]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고 말한다. 본문은 지혜와 돈이 다 보호하는 것이 되지만, 지혜가 돈보다 더 낫다고 말한다.

돈이 있으면 영양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고 편안한 집에서 살 수 있고 몸이 아프면 좋은 의사와 약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 돈이 있으면 자녀도 좋은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처럼 돈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는 점이 있다.

이와 같이, 지혜도 우리를 보호한다. 지혜는 잘못된 빚 보증을 하지 않게 함으로 재산을 보호한다. 지혜는 우리를 게으르지 않게 함으로 가난으로부터 보호한다. 지혜는 교만하여 서로 다투지 않게 함으로 인간 관계를 보호해준다. 무엇보다, 지혜는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해주며 우리의 자녀도 보호해준다.

본문은 특히 지혜가 우리의 생명을 주고 그것을 보존한다고 말한다. 지혜는 영생의 길이다. 지혜를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죄를 버리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한

다. 잠언 3:13-18은, 지혜가 정금보다 진주보다 귀하며 그 오른편에 장수가, 그 왼편에 부귀가 있고 그 길은 즐거움과 평강의 길이며 마침내 생명나무의 열매 곧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

우리는 지혜가 부모의 유산보다 더 귀함을 깨닫고 그것을 사모하며 소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악을 버리며 계명에 순종하자.

**[13-14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 . . .**

본문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고 말한다. 하나님은 섭리자이시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좋고 나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곧게 할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5:7에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다. 욥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욥기 1:21,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잠3:6).

본문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고 말한다. 사람은 내일의 일을, 아니 다음 순간의 일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을 좋은 날과 힘든 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뒤섞어 두셔서 장래 일을 짐작치 못하게 하셨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약 4:14).

본문은 특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말한다. 우리는 형통하고 좋은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러나 곤고한 날, 즉 어려운 일이 있는 날에는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어떤 부족이 없는지, 죄가 없는지 자신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시편 119:67,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71,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 자신을 반성할 기회를 삼고 회개하고 말씀을 순종케 된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인정하자. 특히 곤고한 날, 어려운 일이 있는 날에는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생각하자.

**[15-18절]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 . . .**

본문은,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長壽)하는 악인이 있다”고 말한다. 세상에는 의인이지만 아벨처럼 다른 사람의 미움과 핍박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자가 있고, 악인이지만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고 은밀히, 교묘히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도 내버려두심으로 장수(長壽)하는 자도 있다.

본문은 그러므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고 말한다. 이 말씀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자신의 의를 나타내지 말라는 뜻일 것이다. 사람 앞에 드러내는 의는 외식적, 율법주의적, 바리새인적 의가 되기 쉽다. 또 그런 사람은 자신을 크게 여기고 남을 정죄하기 쉽고 그러면 주위 사람들의 반감을 더 쉽게 살 것이다.

본문은 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고 말한다. 이 말씀은 적당한 악인이 되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성을 가진 죄인이지만, 드러난 악인은 사회적 제재를 당하고 감금을 당하고 벌을 받고 심한 경우는 사형도 당한다. 그런 악인이 되지 말라는 뜻이다.

본문은 또한,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고 말한

다. 너무 드러나게 의를 행하고 의인인 척하지도 말고, 또 너무 드러나게 악을 행해서도 안 된다는 뜻일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런 잘못들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 의를 행해도 은밀히 하고 드러날 경우도 자랑치 말고 높은 마음으로 남을 정죄하지 말고, 또 물론 드러나게 악을 행하지도 말아야 한다.

**〔19-20절〕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 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본문은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 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고 말한다. 본문은 지혜의 가치와 지혜의 유익을 증거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잠언이 말한 그 지혜인 줄 안다. 그것은 세상적, 육신적 지혜가 아니고, 신적, 천적, 영적 지혜이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즉 의와 선과 진실을 행함으로 증진되는 것이다.

지혜는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 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한다. 성읍의 유사 즉 성읍의 관원은 세상에서 지혜와 권세가 있는 자이다. 그는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 기억력, 판단력, 언변, 용기가 더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은 자는 성읍의 열 유사보다 더 지혜롭고 더 능력이 있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의 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지혜롭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다(97-100절).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지혜가 바벨론의 박사들보다 열 배나 더 나았다(단 1:20).

본문은 “[왜냐하면](כי)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없음이니라]”고 말한다. 본문은 참 지혜가 열 유사보다 나은 이유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왕들도, 관원들도 다 죄인이며 부족한 인생들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능하고 권세 있는 자라도, 자신의 무지와 편견과 아집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의 악한 풍조를 이길 수 없고, 마귀의 시험이나 죄의 유혹을 피하거나 이길 수 없다.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범죄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지혜를 귀하게 여기자.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고 순종하자.

**[21-22절]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 . .**

본문은,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네 마음이 아느니라”고 말한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좋은 친구의 의견과 충고를 들을 필요가 있다. 나라의 통치자는 백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남의 의견을 듣지 않는 자는 실수하기 쉽고 독선적이고 편협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모든 말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의 말들에는 항상 잘못된 말, 부정적인 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람들의 말만 들으면 무엇을 확신하고 용기를 가질 수 없고 낙심하여 아무 일도 못하기 쉽다. 사람들의 말만 듣는 자는 어린이 동화의 이야기처럼 결국 당나귀를 지고 가는 자와 같이 될 것이다.

느헤미야 6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위해 유대 땅에 총독으로 왔을 때, 산발랏, 도비아, 계셈 등은 그를 대적하였고 그를 해치려 하였다. 그들은 느헤미야가 유대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하고 왕이 되려 한다는 거짓말을 퍼뜨렸다. 그것은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그와 그의 동료들의 손을 피곤케 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었다.

오늘날도 사탄은 하나님의 종들을 낙심케 하여 하나님의 바른 일

을 못하게 하려 한다. 사도 바울은 전도사역에서 매 맞음, 갇힘, 자지 못함, 먹지 못함 등 많은 고난을 받았고 또 영광도 얻고 욕도 들었으며 악한 이름도 얻었고 아름다운 이름도 얻었으나(고후 6:5-8) 낙심치 않았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확신하여 그 뜻을 행하는 것이다(엡 5:15-17).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사람들의 의견을 조금 들을 필요는 있으나 그 모든 말에 마음을 쓸 것은 없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믿고 행하자.

**[23-24절]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 . .**

본문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라”라고 말한다.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일들 곧 하나님의 섭리의 일들을 가리킨다고 본다. 솔로몬은 인간적 지혜로 세상의 모든 일을 이해하려고 힘썼고 인간적으로 지혜자가 되기를 구하였다. 그러나 그는 참 지혜에 이르지 못했고 참 지혜는 그와 거리가 멀었다.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라는 말에 ‘무릇 된 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그 이유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그 이치와 그 이유가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하고 파악하기에 너무 멀고 너무 깊다고 고백한다. 사람으로서 그것을 능히 통달할 자가 없다고 깨달은 것이다.

본문은 사람의 지혜의 한계성 곧 인간의 무지함을 증거한다. 사람이 무엇을 다 아는 것같이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며 또 하나의 무지(無知)일 뿐이다. 사람이 우주만물에 대해 가진 지식은 지극히 미미하고 지극히 단편적인 것일 뿐이다. 우주는 사람이 파악하기에는 너무 광대하고 광활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이 파악할 수 없이 높고 깊으시다. 여기에 인간의 겸손과 참 경건의 시작이 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천년은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다고 고백하였다(시 90:40. 이사야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같이, 빈 것같이 여기시느니라”고 증거하였다(사 40:15, 17).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 인간의 무지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겸손히 엎드리며 그를 섬기자.

**[25-26절]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 . . .**

본문은,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마음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다”고 말한다. 후반부의 원문은 “어리석은 것 곧 미련한 것과 정신 없는 것(혹은 미친 것)의 악”이라는 뜻이다. 세상에는 어리석고 악한 일들, 정신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 솔로몬은 그 모든 일들을 살피고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문은 또,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울무와 그물 같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고 말한다. 남자가 아내를 잘 만나지는 것은 큰 복이다. 어진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잠 19:14; 31:10). 그러나 마음이 울무와 그물 같고 손이 포승줄 같은 여인은 다른 사람을 죄악과 사망으로 이끈다.

솔로몬은 그런 여자를 “사망보다 독한 자”라고 부른다. 이것은 그의 실패의 경험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가 나이 늙었을 때 왕비들은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했다(왕상 11:4). 그는 잠언에서 다투는 여인에 대해 여러 번 말했다.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고 말하였고(19:13; 27:15) 그런 여자와 큰 집에 살기보다 광야나 지붕 모퉁이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했다(21:9, 19). 그런 여자의 남편은 마음에 큰 고통을 당하고 결국 불행에 이른다.

본문은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고 말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는 원어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KJV, NASB, NIV)’라는 뜻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런 여인을 피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자는 그에게 잡혀 결국 큰 낭패를 당할 것이다.

우리는 마음이 올무 같은 자가 되지 말고 선하고 좋은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자가 되어 마귀의 시험을 피하자.

**[27-29절]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낱알이 살피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 . .**

본문은,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낱알이 살피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진리를 참으로 깨닫고 인생에 대해 깨닫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질 수 있는 지혜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고전 1:21).

본문은 “일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일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고 말한다. 솔로몬은 천 명의 남자들 중에 겨우 한 명을 찾았고 천 명의 여자들 중에서는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 여자들은 아마 그가 거닐었던 700명의 왕비와 300명의 첩들을 가리켰는지도 모른다. 실상, 온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참 지혜자이다. 그의 모친 마리아까지도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비천한 죄인에 불과하다.

본문은 또,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원문--‘그들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고 말한다. ‘꾀’라는 원어(퀴쉬보노스 תִּבְנִין)는 ‘고안들, 계획들’이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본래 정직하게 만드셨다. 사람은

본래 선도 악도 아닌 중성상태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고 선한 상태로 지음을 받았다. 그것이 의와 거룩의 하나님 형상이다(엡 4:22-24). 그러나 사람은 범죄함으로 많은 피를 내었고, 많은 악한 고안들과 계획들을 내었다. 창세기 6: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8:21,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은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구원이며 성화이다. 우리는 성령을 좇아 행함으로 죄성을 이겨야 한다.

## 8장: 왕에게 복종하라

[1절]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 . .

본문은,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의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고 말한다. 본문은 지혜자와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를 동일시한다. 사리의 해석을 안다는 말은 세상의 모든 일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의 모든 일들의 이치, 그 원인과 진행방향과 예상되는 결과, 바른 대처방식 등을 안다는 뜻이라고 본다.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며 그 얼굴의 사나운 것이 변한다. 사람의 얼굴은 마음의 표현이다.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그들이 꾸는 꿈 때문에 그 얼굴에 근심빛이 있었다. 사람의 마음의 기쁨은 기쁜 얼굴로, 마음의 슬픔은 슬픈 얼굴로 나타나며, 마음의 교만은 교만한 얼굴로, 마음의 겸손은 겸손한 얼굴로 나타나고, 또 마음의 간교함은 간사한

얼굴로, 마음의 착함은 선한 얼굴로 나타난다. 사람의 얼굴은 그 마음을 반영한다.

인간의 무지함은 마음에 긴장과 두려움을 갖게 하고 얼굴을 엄하고 사납게 만든다. ‘사나운 것’이라는 원어(오즈 **יָרֵא**)는 ‘힘’이라는 단어로서 ‘굳음, 엄함(NASB, NIV), 사나움, 뻔뻔함(boldness)(KJV, BDB)’ 등의 뜻을 가진다.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한다(잠 21:29). 그러나 참 지혜는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그 얼굴의 거칠고 사나움을 변화시킨다. 지혜는 마음에 이해심, 여유, 평안, 기쁨, 선함을 가지게 하고 그것은 밝고 평온한 얼굴로 나타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테반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성경은 말한다(행 6:15).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에 지혜와 이해심과 여유를 얻어 우리의 엄하고 사나운 얼굴이 밝고 평온한 얼굴로 변화되게 하자.

**(2-4절)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히 말며 악한 것을 . . . .**

본문은,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고 말한다. 왕의 임직시 백성들은 왕을 존중하고 따를 것을 맹세한다. 역대상 11:3,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로마서 13:1-2,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교인들이 당회에 복종하는 것도 같은 원리이다.

본문은,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히[급하게]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고 말한다.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무례하게, 반항적이게 행하지 말라’는 뜻이다. 또 ‘일삼지 말라’는 원어(알 타아모드 **לֹא תַעֲשֶׂה**)는

‘계속하지 말라, 고집하지 말라’(BDB)는 뜻으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행했을 때는 그것을 즉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뜻이다.

본문은 또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라고 말한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으나, 보통은 왕의 행동을 지적할 자가 없고 지적하기가 어렵다. 백성이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 뜻이다. 단지,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될 때는 복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들은 왕의 명령을 어겼고(단 3, 6 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도 공회의 명령을 어겼다(행 4:19).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자.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자.

**[5-8절]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론 무슨 일에도든지 시기와 판단이 . . . .**

본문은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느니라. 무론 무슨 일에도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며 재앙을 경험치 않을 것이다. 이사야 48:18,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으리라.” 그러나 지혜가 없는 자는 그렇지 못하여 그에게 임하는 재앙이 심할 것이다.

본문은 또,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므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에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약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고 말한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약 4:14). 내일도 계속 평안할지, 내일 어떤 화가 임할지 아무

도 모른다. 또 사람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없고(마 6:27) 죽음의 시간을 한 시간이라도 지연시킬 수 없다. 호흡이 떠나갈 때는 아무도 그것을 막지 못하고 떠나가며, 죽음이 찾아올 때면 아무도 그것을 막지 못하고 맞을 수밖에 없다.

사람은 미래를 확신하지 못한 채 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은 자는 가장 지혜로운 삶,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는 꼭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결정을 하며 살 수 있다. 그것은 그 자신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간섭하심으로 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4:15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지혜롭게, 안전하게 헤쳐나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9-13절)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 . . .**

본문은,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한 사람]이 사람[다른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자신을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한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의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다시 번역하면, ‘내가 본즉 성소에 드러들던 악인들은 장사지낸 바 되었고 그들은 그들이 그렇게 행하던 성읍 사람의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KJV, NASB)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어떤] 죄인이 백 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녕히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

라”고 말한다.

일시적으로 혹은 예외적으로 악인이 평안하고 형통한 경우가 있으나(욥 21:7-13a),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일반 진리는 권선징악(勸善懲惡)이다(롬 2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곧 죄 짓는 일을 큰 잘못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피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며 평안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형통할 것이며, 그들이 영생을 얻고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 곧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자신의 무지와 욕심과 죄성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은 잘 되지 못하며 평안치 못하며 영생하지 못하며 죽음과 불행을 당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벌을 받지 않는 자도 마지막 심판과 지옥 형벌이 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다 받을 것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나,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행하며 모든 종류의 죄를 멀리하자.

**[14-15절]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 . .**

본문은,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고난을 받는 의인도 있고 평안을 누리는 악인도 있다. 전도서 7:15,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욥기 21:7-13a과 시편 73:3-5, 12 등도 악인의 평안과 형통함을 증거한다.

본문은, “이에 내가 회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온 것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고 말한다. 허무한 세상, 수고로운 세상, 때때로 모순

이 있고 도덕적 무질서가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은 쾌락주의를 가르친 것이 아니고 허무하고 수고로운 세상에 주신 위로와 복이다.

우리는 금욕주의로나 쾌락주의로 치우치지 말아야 하며,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 알고 감사히 누리야 한다. 전도서 2:24,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전도서 3:13,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 5:18,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우리는 이 허무하고 수고로운 세상에서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깨닫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누리자.

**[16-17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하는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 . .**

본문은,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하는 노고(勞苦)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라고 말한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즉 해 아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사람은 지혜를 다해 연구하고 살펴도 그 원인, 그 이유, 그 진행방향, 그 목적지를 다 깨달을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다 알 수 없다. 전도서 3:11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始終)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존재 자체와 그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무한하시다. 그러나 인간은 심히 유한한 존재이다. 무한과 유한의 차이는 무한히 크다. 그러므로 욥기 11:7은,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고 말하며, 또 로마서 11:33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감추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케 하려 하심이다. 그러므로 이사야 50:10,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와 이름의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 지어다”라고 말하며, 신명기 29:29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고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해주신 만큼 하나님을 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를 믿고 순종해야 한다.

## 9장: 사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

**[1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 . . .**

본문은,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고 말한다. 세상에선 악인이 형통하기도 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일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상황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고 또 앞으로 잘 될지 어떨지를 알 수 없다.

우리는 단지 세상의 모든 일, 모든 사람의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대로, 주권적 섭리대로 된다는 것을 안다. 시편 115:3,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시편 135:6,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이사야 45:7,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서는 특히 자기 백성들, 즉 의인들과 지혜자들을, 비록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특별한 사랑으로 돌보신다. 신명기 33:3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라고 말한다. 주께서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고(요 10:28),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하였다(롬 8:28).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자. 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자.

**[2-3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 . . .**

본문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악한 것이다.] 곧 인생의 마음에[게다가, 인생의 마음은] 악이 가득하여 평생

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본문은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 똑같음을 증거한다. 이것은 세상에서의 외형적인 일, 현상적인 일을 두고 말한 것이다. 모든 사람은 늙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마침내 다 죽는다. 이것은 의인과 악인에게 구별이 없어 보인다. 또, 아브라함과 욥처럼 의인도 물질적 부요의 복을 누리나, 욥기 21:7-13와 시편 73:3-5, 12이나 우리의 경험의 증거대로 악인도 물질적 부요의 복을 누린다. 아합처럼 악인이 전쟁에서 죽기도 하나, 요시아처럼 의인도 전쟁에서 죽기도 한다(왕하 23:29). 본문은 이런 일들이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의 악은 도덕적 개념보다는 ‘큰 고통’이라는 뜻이다.

더욱이, 본문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악이 가득하고 일평생에 미친 마음이 있고 또 마침내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간다고 말한다. 이것이 세상에서 더욱 불행한 사실이다. 사람은 마음이 심히 부패한 죄인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렘 17:9). 죄와 죽음이 이 세상의 가장 큰 불행이다. 그러나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필요가 있고 죄씻음과 의롭다 하심과 심령의 변화와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의 변화가 가장 귀하고 복된 사실이 있다.

우리는 세상의 가장 큰 불행이 죄와 죽음이며, 세상의 가장 큰 행복이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구원임을 알자.

**[4-6절] 모든 산 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옴이니라.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 . . .**

본문은, “모든 산 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옴이니라”고 말한다. 본문은 생명의 가치가 큼을 증거한다. 개는 짐승 중에 보잘것없는 짐승이지만,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고 불리는 짐승이다. 그러나 죽은 사자는 더 이상 아무 힘도 쓰

지 못하고 다른 짐승에게 뜯기고 썩어갈 뿐이다.

본문은 모든 산 자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산 사람에게 인생의 불행을 피할 길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죽은 자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산 자에게만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을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초기부터 이 길을 보이셨다.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딤후 1:2).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신 가죽옷의 의미이며, 그것은 옛부터 주신 제사제도나 성막제도와 성전제도에 담긴 뜻이다.

또 본문은,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히 분복이 없느니라”고 말한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는 아무 보상도 받을 수 없다. 그의 이름은 잊혀져 버린다. 그의 사랑함도, 그의 미워함도, 그의 시기함도 다 없어져 버린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서 그는 아무 분복도 누리지 못한다. 그러나 모든 산 자는 자신이 죽을 줄을 알고 그 죽음을 대비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죄와 불행을 깨닫고 회개하고 고치고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자신을 단장할 수 있는 것이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크다.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허무한 세상 것과 바꾸지 말자. 우리는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를 멀리하며 살자.

**[7-8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 . . .

본문은,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고 말한다.

본문은 성도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대해 교훈한다. 우선, 성도는 세상을 슬프고 우울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신앙생활은 금욕주의적 생활이 아니다. 골로새서 2:20-23,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儀文, 율법조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좇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自意的)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4:3-4,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성도는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음료수를 마시고 옷을 항상 깨끗하게 빨아 입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를 수 있다. 구약 성도들은 추수 때에 기쁨의 잔치를 하였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밝고 활달하게, 긍정적으로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하는 일들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이다. 세상의 만물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다(살전 5:16).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슬프고 우울하게 살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밝고 활달하게 긍정적이게 살자.

**[9절]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네가 . . . .**

본문은,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네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고 말한다.

## 전도서 9장: 사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

본문은 인생의 삶이 헛된 날들임을 반복해서 전제한 후, 이런 허무하고 수고로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즐거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뿐 아니라(7, 8절), 또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서로 사랑할 때 그러하다. 그러므로 잠언 12:4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고 말했다.

성경은 부부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교훈한다. 잠언 5:18-19는,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죽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고 말하며, 에베소서 5:25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교훈한다.

결혼은 세상에서 음행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 그러므로 결혼한 사람은 부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독신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더 충성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고린도 전서 7:32-34,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 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결혼한 자는 즐겁고 복된 부부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은 허무하고 수고로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복이다.

**[10절]** 무릇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본문은, “무릇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음부’는 무덤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서는 첫 사람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고 (창 1:28)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들을 거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가꾸고 경작하게 하셨다(창 2:15). 일과 노동은 사람의 창조 때부터 사람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실 때에도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쉬라”고 명하셨다(출 20:9). 그러므로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힘써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사람이 일하지 않고 게으른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이다. 잠언은 근면을 교훈하며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하며(잠 6:6-11) 게으름이 가난의 주요 원인임을 말한다.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증거요 건강하다는 표이며 내가 무엇인가에 쓸모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사람이 죽어 무덤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지혜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지금 살아 있을 때 게으르지 말고 힘써 일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각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명했고, 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교훈했다(살전 4:11; 살후 3:10). 우리는 힘써 일하되 바르고 선한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엡 2:10; 딤후 2:14). 예수께서는 우리가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교훈하셨다(마 5:16).

우리는 살아 있는 동안 힘을 다해 일을 하자. 범사에 게으르지 말고 우리의 할 일에 부지런하고 충실하되, 특히 선한 일에 힘쓰자.

**[11-12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 . . .**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

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길보림 גִּבּוֹרִים ‘강한 자들’)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요테일 יוֹטֵיִם ‘지식 있는 자들’)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時期)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울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고 말한다.

물론, 더딘 경주자보다 빠른 경주자가 낫고, 약한 자보다 강한 자가 낫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보다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낫고, 또 지식과 기술이 없는 자보다 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가 낫다. 사람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일에 숙달되고 전문가가 될 것이다. 각양의 직업을 가진 남자도, 주부인 여자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근면함이 삶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모든 원인은 아니다. 빠른 경주자도 경기하는 날에 몸이 안 좋거나 출발시에 실수를 할 수 있다. 또 전쟁의 승리도 단지 군사력에만 있지 않다. 모든 일들은 시기[때]와 우연에 영향을 받는다. 사람은 재앙의 때를 예측하지 못한다. 마치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울무에 걸리듯이, 재앙이 사람에게 갑자기 임한다. 무서운 전염병도, 홍수, 폭설, 지진 같은 천재지변도, 또 크고 작은 사고들도 사람의 예상 밖에 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우리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고 고백해야 한다(약 4:15).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자.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

**[13-18절]**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 . .

본문은,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

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다.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 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信聽)되지[그 말을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중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오니라. 지혜가 병기보다 나오니라[나오나].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케케 하느니라”고 말한다.

지혜의 효능과 유익과 장점이 있다.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이 이웃의 큰 나라 임금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한 가난한 지혜자가 그 성을 구원해냈다. 지혜는 힘보다 낫고 병기보다 나았다. 사무엘 하 20장에 보면, 다윗 시대에 베냐민 사람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요압이 그를 좇아 아벨이라는 성을 포위하고 그 성을 멸하려 했는데, 그 때 그 성에 지혜로운 한 여인이 나서서 요압과 대화하여 세바의 머리를 내어줌으로 그 성을 구한 일이 있었다.

본문은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지혜자를 기억지 않았고 그를 멸시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것이 무지한 세상의 모습이다. 17절은, “지혜자들의 말들은 우매자들의 통치자의 호령보다 조용하게 들리는도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MT, KJV). 그의 말이 사람들의 큰 관심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나 말 솜씨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말쟁이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득세한다.

우매자 한 사람이 많은 선을 파괴시킨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고(고전 5:6), 악한 친구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전 15:33).

우리는 지혜자가 되고 지혜자를 존중하고 그의 말을 듣는 자가 되자.

## 10장: 작은 어리석음

[1절]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같이 . . . .

본문은,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같이 작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고 말한다.

우매함이 무엇인가? 우매함은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것이다. 사람은 죄성(罪性)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적 생각, 인간적 감정, 인간적 판단, 인간적 말과 행동에는 우매함이 있다. 그것이 겉보기에 또 세상적으로 지혜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면 지혜는 무엇인가?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생각과 판단, 말과 행동이며, 성경 교훈에 따른 생각과 판단, 또 말과 행동이다. 로마서 8:5-6은,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성령]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말하고, 갈라디아서 5:16은, “성령의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한다. 야고보서 3:17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고 말한다.

아무리 냄새가 좋은 향기름도 파리 한 마리가 거기에 빠져 죽으면 얼마 안 있어 악취가 날 것이다. 이처럼 작은 우매함이 사람의 지혜와 존귀함을 더럽힌다. 성도는 선한 인격의 향기를 나타내야 하는데, 이기적이고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말로나 행위로 나타난 성도의 작은 우매함이 그의 인격의 추한 모습을 드러내며 다른 이들에게 알려지게 한다.

그러므로 성도는 작은 우매함과 악, 작은 실수를 조심해야 한다. 성

도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고 선함으로 단장해야 한다.

**[2-3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 . . .**

본문은,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고 말한다. 오른편은 힘이 있는 편,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편을 말한다. 사람은 보통 오른손잡이이다. 왼손잡이는 예외적이다. 반면에, 왼편은 힘을 쓰기 불편한 쪽, 유용성이 적은 쪽을 가리킨다. 그것은 게으른 사색, 탁상공론, 말뿐이고 실천이 없는 것을 가리킬 것이다. 지혜자는 평소에 경건하고 도덕적이지만, 우매자는 말만하고 행치 않는 외식자들과 같은 자들이다(마 23:3).

본문은 또,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고 말한다. ‘길에 행할 때에도’라는 말은 큰 일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즉 그의 일상적인 말과 행동에서도 그렇다는 뜻일 것이다. 사람은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말로나 행위로 나타낸다. 우매자는 일상생활에서 말과 행동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우매함을 드러낸다.

마음은 사람의 행동의 근원이다. 사람은 죄악되므로 악하고 미련한 마음에서 악하고 미련한 말과 행동이 나온다. 주 예수께서는 외식하는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야,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고 말씀하셨다(마 12:34-35). 또 주께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훼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15:19-20). 사람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씻음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의 변화를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

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한 말과 행동을 하자.

**[4절]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恭順)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본문은,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恭順)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고 말한다.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이라는 원문은 ‘주권자의 영[감정]이 너를 향해 일어나거든’ 즉 ‘주권자가 네게 분을 내거든’이라는 뜻이다. 주권자가 언제 분을 내는가? 보통 상대방이 잘못이 있을 때 그렇다.

그러나 본문은 그 때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말한다. 자리를 떠나는 행동은 분을 분으로 반응하는 태도이다. 그것은 그의 잘못을 회개치 않는 태도이며 그의 완고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한 태도는 목이 끈고 완악하며 교만하고 패역한 것이다.

그러나 공순함은 큰 허물을 경하게 할 것이다. ‘공순’이라는 원어(마르페 נָפַתָּה)는 ‘치료’라는 뜻이지만, ‘침착함, 평정, 온유함’이라는 뜻도 있다(BDB, KB). ‘공순’은 잘 번역된 말이라고 본다. 주권자가 화를 낼 때 공순한 자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의 책망을 달게 받는 겸손한 태도이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이 있고 실수와 잘못을 범할 수 있지만, 단지 그것을 인정하고 책망을 달게 받고 고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

공순함은 큰 허물을 경하게 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기를, 회개하는 형제의 잘못을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다(마 18:22).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으시고(시 51:17)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주신다(요일 1:9). 악한 유다 왕 므낫세라 할지라도 그가 앗수르로 잡혀가는 큰 고난을 당하자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왕위에 있게 하셨다(대하 33:11-13).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나 사람에게 책망을 들을

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침착하고 공순하게 받자.

**[5-7절] 내가 해 아래서 한가지 폐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노니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 . . .**

본문은 “내가 해 아래서 한가지 폐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노라”고 말한다. 원문은 ‘주권자[통치자]에게서 나오는 허물과 같은 한가지 폐단’이라고 되어 있다(KJV, NASB).

본문은 그 내용으로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고 말한다. 우매자는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부도덕하고 불성실하고 게으른 자인데, 그는 그에게 적합치 않고 그가 감당치 못할 크게 높은 지위를 얻었다. 그러나 반대로 부자는 낮은 지위에 앉았다. 여기에서는 부자와 지혜자가 동의로 쓰인 것 같다. 다윗 때의 나발과 같이 미련한 부자도 있지만(삼상 25:2-3, 25), 지혜로운 자가 부자인 경우도 많다. 왜냐면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도덕적이고 근면한 자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상식이 뒤바뀐 상황이 된 것이다.

본문은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라고 말한다. 종들은 일반적으로 배울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배운 것이 적고 비교적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고 인격성, 덕성, 지도력, 판단력, 포용력이 부족한 자인데, 그런 자가 높은 지위를 얻어 말을 타고 다니고, 반면에 배울 기회가 많아 배운 것이 많고 지혜와 인격성과 덕성을 갖춘 방백들이 종처럼 땅에 걸어나다니게 된 것이다. 이런 일들은 통치자가 인재를 잘못 등용한 때문일 것이다.

교회든지, 국가든지, 지방자치단체든지, 어느 단체든지 일꾼을 잘 등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을 뽑을 때 후보자의 지식과 실력, 건전한 사상과 이념, 또 특히 인품을 잘 살펴 뽑아야 한다.

우리는 바른 교회와 좋은 사회 되기를 기도하자. 당회는 성경의 교

훈대로 좋은 일꾼들을 추천하고 교인들은 그런 자들을 선택해야 한다.

**[8-9절]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 . . .**

본문은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고 말한다. 담을 해치려는 악한 계획을 세우는 자는 그 자신이 거기에 빠지는 해를 당할 것이다. 시편 7:15는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듬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라고 말한다. 또 시편 57:6은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뚫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라고 말한다. 에스더 때에 하만이 대표적인 한 예이었다(에 5장; 7:10).

또 담을 헐다는 말은 남의 밭이나 포도원의 열매를 취하려고 담을 헐든지, 자기의 땅을 넓히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담을 헐다는 뜻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도적질하지 말라고 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땅의 경계표도 이동치 말고 지켜야 한다고 교훈하였다. 신명기 19:14, “네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先人)의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잠언 22:28, “네 선조의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잠언 23:10,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본문은 또,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고 말한다. ‘떠낸다’는 원어(나사 **נָסַח**)는 ‘(채석장에서) 떠낸다’는 뜻도 있으나 ‘제거한다’는 뜻도 있으며(BDB), ‘쪼갬다’는 원어(바카 **פָּרַק**)는 ‘쪼갬다, 뚫는다’는 뜻이다(BDB). 이것은 토지의 경계석을 옮기든지, 남의 밭이나 과수원을 침범하는 행위를 가리킨 것 같다. 남의 열매를 취하려 담을 헐거나 자기 땅을 넓히려 담을 헐거나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행위는 다 악한 일이며 그러므로 본문은 뱀이 나와서 그를 물거나 그로 인해 상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이다. 하나

님께서서는 사람의 악행에 대해 반드시 징벌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공의로 보응하심을 깨닫고 남에게 악을 행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하게만 살자.

**〔10-11절〕 무딘 철 연장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방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 . . .**

본문은, “무딘 철 연장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한다. 무딘 철 연장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는 것은 목수들이 잘 아는 일이다. 또 주부들도 부엌에서 쓰는 칼이 날이 무디면 고기를 썰거나 일하기에 힘들다는 것을 잘 안다. 이와 같이, 지혜가 없으면 무슨 일이든지 하기가 힘들고 지혜가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하기가 쉽다는 것을 말한다.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잠언은 말하기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長壽)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富貴)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하였다(잠 3:15-18).

본문은 또, “방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고 말한다. ‘술객’이라고 번역된 원어(바알 할라손 בַּעַל הַחֲלוּס)는 ‘허의 주인, 달변가’라는 뜻이다. 뱀을 다루는 마술사는 뱀에게 말을 하여 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한다. 본문은 마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로 말하는 것뿐이다. 마술은 속임수도 있고 악령의 역사도 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술객들은 그 술법으로 그들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도 하였고 강물로 피가 되게도 하였고 개구리로 땅에 올라오게도 하였다(출 7-8장).

그러나 사람이 방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

하다. 아무리 달변가가 있어도 이미 닳친 그 혀를 피하거나 모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미리 지혜를 가지고 조치했어야 했다. 본문은 이와 같이 지혜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증거한다.

우리는 지혜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깨닫고 실생활에서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짧은 인생의 삶을 지혜롭게 살기를 소원하자.

**[12-15절]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패니라. 우매자는 말을 . . .**

본문은,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패니라”고 말한다.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은 서로 너무 다르다.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고 덕스럽다. 그러나 우매자의 말은 어리석고 거칠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행함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에게서는 경건과 선행을 기대할 수 없다.

갈라디아서에 증거된 대로, 사람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산 결과는 분쟁과 시기와 분냄 등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자비와 선함과 온유를 포함한다(갈 5:19-23). 야고보도 독한 시기와 다툼은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지혜이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다고 증거하였다(약 3:14-17).

본문은 또,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후사(身後事)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나?”고 말한다. 우매자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자신을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아는 척을 많이 하고 쓸데없는 말, 헛된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그는 실상 자신의 장래 일을 알지 못하고 죽은 후의 일은 더 더욱 알지 못한다. 인간의 지식이란 지극히 제한적인 것이다.

본문은 또,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곤하게 할 뿐이라.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고 말한다. 우매자들은 수고로운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남에게 은혜와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 그들은 오히려 파괴적이다. 그들의 수고는 자신들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그들에게는 마음의 평안과 여유가 없다. 그들은 결국 자신도 망치고 남도 망치는 자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하고 파괴적인 우매자가 되지 말고, 남에게 유익을 끼칠 만한 선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소원하자.

**[16-20절]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 . . .**

본문은,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라고 말한다. 왕이 연령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어려서 경건과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과 경륜도 부족하고 판단력과 지도력과 선함, 인내, 용기, 포용력 등도 부족하고 대신들은 자기 일에 불성실하고 게을러 아침부터 술이나 마시고 즐기는 그런 나라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문은,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라고 말한다. 왕이 귀족의 아들로 자라 고상한 인격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지혜와 지식, 판단력과 지도력, 또 백성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맡겨진 직무에 성실한 덕을 갖추었고 대신들도 기력을 보충하려고 필요한 때에 음식을 먹는 그런 나라는 복이 있을 것이다.

본문은 또, “게으른즉 서까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고 말한다. 사람의 손이 게으르면 집이 무너지고 지붕이 썩 것이다. 나라의 이치도 비슷하다. 19절은 그들이 쾌락을 위해 잔치하고 기쁨을 위해 포도주를 마시며 모든 일을 돈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뜻 같다. 그런 나라는 화가 있다.

그러나 본문은,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

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고 말한다.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인 줄 알고 그들을 존중하고 비방치 말고 주 안에서 복종하며(롬 13:1-7)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딤후 2:1-2).

우리는 우리나라의 위정자들과 백성이 방탕하고 게으르지 않고 경건하고 도덕적이고 근면하게 살며 일하는 복된 나라 되기를 기도하자.

## 11장: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1-2절]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 . . .

본문은,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고 말한다. 본문은 후한 구제를 교훈한다.

본문은 우리가 구제할 때 먹는 음식을 물 위에 던지듯이, 또 일곱 사람이나 여덟 사람에게 나눠주듯이 하라고 말한다. 성경은 구제에 대해 ‘홀어 구제한다’는 표현을 하며(시 112:9; 잠 11:24), 우리가 구제할 때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너그러이 하라고 교훈한다. 신명기 15:7-8, 10,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 . .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9:7,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본문은 구제한 것을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구제에 대해 보상하신다. 신명기 15:10,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잠언 11:25,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잠

언 19:17,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누가복음 6:38,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본문은 땅에는 무슨 재앙이 임할지 알지 못한다고 부언한다. 구제 한 돈보다 도적이나 사고로 잃는 돈이 더 많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6:19,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우리는 구제를 힘쓰자. 구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며 명령이다. 구제는 남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복이 된다.

**(3-4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피보는 지는 . . . .**

본문은,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고 말한다. 본문을,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듯이 하나님께 물질의 풍성한 복을 받은 자들이 구제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는 자들이 있으나, 본문은 재앙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본다. 폭우가 쏟아질 것이며 나무들이 남으로나 북으로 쓰러질 것이다. 사람이 나무같이 죽고나면 아무 일도 못한다. 재앙의 날과 죽음의 날이 곧 찾아올 것이다. 재앙의 날에는 사람들이 은을 거리에 던지며 금을 더러운 물건같이 여길 것이다(겔 7:19). 우리가 더 이상 선을 행할 힘도 기회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앙을 당하기 전에 선을 행해야 한다. 잠언 3:27은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말한다. 갈라디아서 6:10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지니라”고 말한다. 또 야고보서 4:17은,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고 말한다.

본문은 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고 말한다. 이 말은 바람을 보고 파종을 미루거나 구름을 보고 추수를 늦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러나 농사하는 자는 웬만한 어려움은 각오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에 합한 선한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예견되어도 또 실제로 어려운 일이 좀 있어도 낙심치 말고 선을 행해야 한다. 갈라디아서 6: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전도도, 선행도 그러하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성경 교훈에 맞는 선한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낙심치 말고 행해야 한다.

**(5-6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밴 자의 태에서 빠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 . . .**

본문은,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밴 자의 태에서 빠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한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임의로 부는 바람의 길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기압의 변화와 기류의 이동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때때로 태풍 때문에 큰 피해를 입는다. 또 우리는 아이 밴 자의 태에서 빠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생명의 시작과 성장의 신비를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만사를 성취하시는[아사 אֲשֶׁר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 실상 바람도, 생명의 잉태와 성장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이 다 그렇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종으로 팔려 갔을 때, 또 그가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 아무도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이한 섭리 가운데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

본문은,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 이니라”고 말한다. 농부가 씨를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구원과 성화의 일에서도 그러하다. 고린도전서 3:7은,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 있는 대로, 힘이 있는 대로, 선을 행하고 말씀을 널리 전파해야 한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10은,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말한다.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고, 또 오직 우리의 의무를 날마다 부지런히 행하자.

**[7-8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 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 . .**

본문은,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 이로다”고 말한다. ‘아름답다’는 원어(마소크 *pinu*)는 ‘즐겁다’는 뜻이며(BDB, NASB), ‘즐겁다’는 원어(토브 *gib*)는 ‘좋다’는 뜻이다. 태양빛은 일곱 가지의 색깔을 띠는 아름다운 빛이다. 이 빛으로 인해 만물의 형상과 색깔이 드러난다. 사람이 대낮의 불타는 태양을 직접 쳐다볼 수는 없으나, 일출이나 일몰의 아름다운 태양을 볼 수 있다.

본문은 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 일은 다 헛되도다”라고 말한다. 다시 번역하면, “그러나 사람이 여러 해를 살고 그

모든 해들을 기뻐할지라도 어두움의 날들을 기억하라. 그것들이 많음이니라. 오는 모든 날이 헛되도다.” 빛은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상징하고 어두움은 슬프고 고통스런 시간을 상징한다. 아이들뿐 아니라, 사람은 누구든지 밝은 낮을 좋아하고 어두운 밤을 싫어한다.

사람은 긴 인생을 사는 동안 밝고 기쁘게 살아야 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 전도서 9:9,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께서 해아래서 나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5:16,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롭게 살면서 기쁘고 즐겁게, 밝게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슬픈 날, 고통의 날도 많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세상에는 슬픔과 피곤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고 심지어 의인이 당하는 핍박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앙망하는 자는 항상 새 힘을 얻고(사 40:31) 또 세상을 이길 것이다(요일 5:4).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시며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다.

창조자와 섭리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인생을 기쁘게 살아야 한다. 그러나 세상에는 고난도 많음을 알고 고난 중에 낙심치 말아야 한다.

**[9-10절]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 . .**

본문은,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고 말한다. 청년의 때는 꿈과 소망이 있고 무슨 일이든지 하려는 소원이 많은 때이다. 사람이 늙을수록 꿈과 소망이 점점 줄어들고 마침내 다 없어지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청년의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고, 하고 싶은 일을 해볼 수 있다. 너무 우울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짜증스럽게 살지 말고 쾌활하고 씩씩하게 사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

므로 우리는 오직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청년 때에 무슨 일이든지 해볼 수 있으나 오직 죄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본문은 또, “그런즉 근심으로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고 말한다. 결국 인생은 허무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므로 본문은 청년 때의 생활 원리 두 가지를 말한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하다. 하나는 기쁘게 살라는 것이다. 슬픔과 근심은 우리의 심신을 피곤케 하고 해롭게만 한다. 세상에는 항상 고난이 있다. 그러나 섭리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쁘게 살 수 있다. 또 하나는 악을 조심하라는 것이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것을 누리되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 탐심이 우상숭배임을 깨닫고 범사에 절제하며, 또 악을 조심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9:25는, “이끼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교훈하며, 잠언 3:7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한다.

청년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섭리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기쁘게 살자.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범사에 악을 멀리하자.

## 12장: 청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1-8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 . . .

본문은,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고 말한다. 사람에게에는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는 때가 온다.

사람은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즉 청년의 때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2-6절까지의 말씀은 사람의 노년기를 묘사한 것이라고 본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다는 것은 인간의 얼굴, 뺨, 눈이 쇠해짐을 말하는 것 같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많은 눈물을 흘린 다음에 또 근심거리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본문은 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땀돌질하는 자들이 적으므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땀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라”고 말한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떠는 것은 자기 몸을 지키는 손과 팔이 떨리는 것을 말하고,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지는 것은 등과 무릎이 구부러지고 약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땀돌질하는 자들이 적으므로 그치는 것은 이가 많이 빠져 음식을 잘 씹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고,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지는 것은 눈이 어두워 침침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지는 것은 귀가 어두워지고 입의 말수도 적어지는 것을 가리키고, 새의 소리를 인해 일어나는 것은 잠이 적어져 새 소리에도 잠을 깨는 것을 말하고,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해지는 것은 목소리가 쇠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본문은 또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라”고 말한다. 그런 자들이 높은 곳을 두려워하는 것은 연로한 자들이 높은 곳에 오르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가리키고, 길에서 놀라는 것은 길을 걸을 때도 놀라는 것을 말한다. 살구나무가 꽃이 피는 것은 머리가 백발이 되는 것을 가리킬 것이다. 또 메뚜기가

집이 되는 것은 작은 일도 힘들어하는 것을 말하고, 원욕(願慾)이 그치는 것은 식욕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본문은 또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위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리라”고 말한다. 이것은 사람이 죽으면 조문객들이 방문하게 됨을 말한다. 또 은줄이 풀리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신경조직이나 근육이 약해지는 것을 말하고, 금 그릇이 깨어지는 것은 사람의 두뇌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다. 또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위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는 것은 좌우 심방을 가진 심장과, 동맥, 정맥의 혈관이 그 기능을 그치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다.

본문은 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한다. 흙이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이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죽음을 가리킨다.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 즉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현상이다. 전도자는 또 말하기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강조하여 증거한다. 이것은 전도서의 주제이기도 하다. 죽음은 이 세상 삶이 허무함을 잘 증거한다.

우리는 사람이 노쇠하여 죽는 날이 올 것을 생각하고 젊을 때부터 세상 중심, 육신의 쾌락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자. 오직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자.

**[9-10절]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 . .**

본문은,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고 말한다. 잠언과 전도서를 비롯하여,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주에 대한 참 지식을 전하며 가르친다. 특히 욕

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한 지혜의 지식을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지만, 인간 저자가 또한 묵상하고 연구하며 가르친 지식이다. 성경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다. 성경말씀은 성도를 원수보다, 스승보다, 또 노인보다 지혜롭게 한다(시 119:98-100).

본문은 또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다”고 증거한다. ‘아름다운 말’이라는 원어(디브레 케페츠 דְּבָרִים יְפֵאִרִים)는 ‘기뻐할 만한 말들’이라는 뜻이다. 성경은 우리가 기뻐할 만한 말씀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좋은 말씀, 복된 말씀일 뿐 아니라, 내게 기쁨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편 119:24는,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라고 말했고 시편 119:92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라고 말했다.

본문은 또,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고 말한다. 성경은 인생과 우주의 참 이치를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이다. 예수께서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말씀하셨다(요 17:17). 시편 19:8은 “여호와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했다. 또 잠언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정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해 쓰여졌다(잠 1:1-3).

우리는 성경이 복된 말씀, 곧 지혜와 지식의 말씀, 기뻐할 만한 말씀, 정직한 말씀, 진리의 말씀임을 알고, 성경을 사랑하며 많이 읽자.

**[11-12절]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내 아들이아, . . .**

본문은,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고 말한다. 본문은 성경의 유익과 성경의 권위를 증거한다. 성경은 찌르는 채찍 또는 뾰족한 막대기같이, 또 잘 박히는 못과 같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책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지시해주고 또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잘 박힌 못같이 우리 심령에 박혀 기억되고 역사한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16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했다. 또 성경은 한 목자의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이시다(시 23:1; 80:1).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로 주신 말씀, 곧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확무오한 법칙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본문은 또, “내 아들이야, 또 경계를 받으라”고 말한다. 본문은 “더욱이 내 아들이야, 그것들로부터 교훈을 받으라”고 다시 번역할 수 있다(KJV). ‘그것들’은 성경 말씀들을 가리킬 것이다. 우리는 큰 유익이 있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성경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경계를 받아야 한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본문은 또,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고 말한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책들이 있다. 이 세상에서 책들을 만드는 일과 그것들을 연구하는 일은 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는 오직 한 권의 책이 있다. 그 책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며 그 책을 공부하는 것이 인생에게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거기에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의 유익, 곧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을 주는 유익을 알고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적 권위를 알고 성경을 사랑하자.

**[13-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 . . .**

본문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말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말은 전도서에서 말한 대로 세상의 모든 일, 즉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되며 인간의 모든 수고와 즐거움도 그러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허무한 세상에서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가? ‘본분’이라는 원어(קול נפש)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다.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람이 행해야 할 본분이며 모든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다른 성경과도 일치한다.

신명기 10:12-13,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미가 6:8,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즉, 사람의 본분은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다.

본문은 또 “[이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심판하실 것임이니라]”(원문)고 말한다. 본문은 사람의 본분에 대한 이유를 말한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사람의 모든 행위, 심지어 은밀한 행위까지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대법원의 최종적 확정판결과 같다. 사람이 거기에서 정죄되면 천국에서 제외되고 영원한 지옥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인생의 헛됨을 알고 또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을 항상 기억하고 사람의 본분을 다하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자.

## 저자 소개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졸업 (B.A.).

총신대학 신학연구원[신학대학원] 졸업 (M.Div. equiv.).

미국, Faith Theological Seminary 졸업 (Th.M. in N.T.).

미국, Bob Jones University 대학원 졸업 (Ph.D. in Theology).

계약신학대학원 교수, 합정동교회 담임목사.

[역서] J. 그레섬 메이친, 신약개론, 신앙이란 무엇인가? 등 다수.

[저서] 구약성경강해 1, 2, 신약성경강해, 조직신학, 기독교교리개요, 기독교 윤리, 현대교회문제,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 에큐메니칼운동 비평, 복음주의 비평, 현대교회문제자료집, 천주교회비평 등.

---

## 전도서 강해

---

2010년 6월 18일 초판

2017년 8월 16일 수정

저 자 김 효 성

발 행 처 옛신앙 출판사

Old-time Faith Press

[www.oldfaith.net](http://www.oldfaith.net)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내

02-334-8291, 9874

[oldfaith@hfdc.net](mailto:oldfaith@hfdc.net)

등록번호: 제10-1225호

---

ISBN 978-89-98821-21-0 03230

옛신앙출판사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출판권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오직 정확 무오(正確無誤)한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背敎)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 옛신앙 출판사 서적 안내

- 김효성, **구약성경강해 1**. 878쪽. 26,000원 (보급가 9,000원).
- 김효성, **구약성경강해 2**. 1001쪽. 26,000원 (보급가 11,000원).
- 김효성, **민수기 강해**. 212쪽. 무료.
- 김효성, **신명기 강해**. 241쪽. 무료.
- 김효성, **열왕기 강해**. 271쪽. 무료.
- 김효성, **역대기 강해**. 286쪽. 무료.
- 김효성, **욥기 강해**. 211쪽. 무료.
- 김효성, **잠언 강해**. 624쪽. 8,000원 (보급가 4,000원).
- 김효성, **전도서 강해**. 86쪽. 무료.
- 김효성, **아가서 강해**. [제2판]. 87쪽. 무료.
- 김효성, **이사야 강해**. 496쪽. 무료.
- 김효성, **소선지서 강해**. 360쪽. 무료.
- 김효성, **신약성경강해**. [제2판]. 1014쪽. 26,000원 (보급가 11,000원).
- 김효성, **마태복음 강해**. 378쪽. 6,100원 (보급가 3,000원).
- 김효성, **마가복음 강해**. 223쪽. 4,000원 (보급가 2,000원).
- 김효성, **요한복음 강해**. 281쪽. 6,000원 (보급가 3,000원).
- 김효성, **조직신학**. 604쪽. 6,000원.
- 김효성, **기독교 교리개요**. [제9판]. 96쪽. 2,000원 (보급가 1,000원).
- 김효성, **기독교 윤리**. [제5판]. 234쪽. 4,000원 (보급가 2,000원).
- 김효성, **기독교 신앙입문**. [제10판]. 34쪽. 600원.
- 김효성 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판]. 108쪽. 1,200원.
- 김효성 역, **어린이들을 위한 요리문답**. [제7판]. 48쪽. 500원.
- 김효성, **현대교회문제**. [제4판]. 182쪽. 무료.
- 김효성,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 171쪽. 6,000원 (보급가 1,600원).
- 김효성, **에큐메니칼운동 비평**. 158쪽. 6,000원 (보급가 1,700원).
- 김효성, **복음주의 비평**. 193쪽. 6,000원 (보급가 1,200원).
- 김효성, **천주교회 비평**. [제2판]. 80쪽. 900원.
- 김효성, **이단종파들**. [제6판]. 70쪽. 700원.
- 김효성, **공산주의 비평**. 28쪽. 무료.

★ 주문: 전화 02-334-8291, 이메일 oldfaith@hjdc.net

★ 계좌: 농협 302-0401-6652-61 김효성.

★ 파일내려받기: <http://www.cps2014.net/00download.htm>

\*\*보급가는 인쇄비이며 문서헌금입니다.